28일 광주은행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경제 거버넌스 구축 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시민단체·상의 중심 '경제 거버넌스' 구축

'광주경제 살리기' 나선다

'지역운동본부' 12월 출범 … 고용창출·투자유치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광주상의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 거버넌스(Governance)'인 광주경제살리기운동본부가 오는 12월초 공식 출범한다.

광주경제살리기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향후 지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운동본부 출범과 함께 효율적인 투자유치, 고용창출, 소비촉진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준비위원회는 28일 광주은행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가졌다.

대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민원(광주경제살리기운동본부 준비위원장·광주대) 교수는 이날 '광주·전남 경제회생 구상'이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광주경제는 기업가도, 기업가 정신도 부족할 뿐 아니라 5+2 광역경제권, J프로젝트 표류, 첨단의료복합단지 무산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제하면서 운동본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광주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광주형 기업창출 ▲수요부흥 ▲지역금융 역할제고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해법으로는 기존의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외에 직업훈련 이력 등을 기록한 취업카드 활용, 업무급 또는 역할급 채용을 통한 기업의 중도채용 확대, 공공기관의 역할제고 등이 거론됐다.

또 이 교수는 "수요부흥을 위해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가동, 자영업자를 살리고 지역축제의 자원화, 출향민과 연계한 지역제품 구매운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교수는 금융위기 광주대책반과 지역자금 애로 해소센터를 개설, 가동해 지역자금사정을 개선하는 한편 광주를 재디자인하는 작업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세계인들에게 알려 광주를 '사람과 기업을 부르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경제 거버넌스=기업·학계·비정부기구(NGO)·언론 등 사회 구성인자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말한다.

소비심리 급속 냉각

韓銀 2천200가구 소비동향 조사
자산 가치 하락·경기 침체 여파
10월 소비자 지수 전달보다 8P ↓

자산가치 하락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냉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전국 2천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88로 전월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합산해 산출한다.

지수가 100 미만이면 현재 상황이 악화됐다는 답변이 나아졌다는 응답보다 많다는 의미다.

허상도 한은 통계조사팀 과장은 "8~9월에는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경기 대책 등으로 소비자심리가 소폭 회복됐지만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10월에는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현재생활형편 지수는 71로 전월보다 4포인트 떨어졌고 생활형편전망 지수는 79로 전월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가계수입전망 지수는 91로 전월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지출전망 지수는 100으로 한 달 새 6포인트 낮아졌다. 각 소비지출 항목별로도 2~9포인트씩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여행비(△9포인트)와 외식비(△7포인트)의 하락폭이 컸다.

특히 현재경기판단 지수가 45에서 31로 14포인트, 향후경기전망 지수가 82에서 61로 21포인트 각각 급락, 소비심리 악화를 주도했다. /연합뉴스

금호 4천억 유동성 확보

계열사 지분 매각 등 … 3분기 매출 6조원 최대 실적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8일 기업설명회를 열어 금호산업과 대우건설의 계열사 지분, 부동산 매각 등으로 3천954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31일 기업설명회에서 내년 6월까지 1단계로 4조5천74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계획의 8.6%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계열사 별로는 금호산업이 계열사 지분매각으로 1천211억원, SOC 주식매각으로 1천351억원을 확보했고, 대우건설은 부동산 매각 등으로 1천392억원을 확보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또 상장·매각을 놓고 저울질하던 금호생명과 관련해 50%+1주 또는 69.84% 전량을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호생명 매각은 29일부터 실사를 시작, 12월 초 입찰을 한 뒤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은 고금리, 환율불안 등 외부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던 2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3분기 매출액은 6조 1천51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5%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대비로도 33.5% 늘어 분기 매출로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역시 전분기 대비 6.3%, 전년 동기대비 0.7% 늘어난 4천121억원을 달성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44.3% 증가한 3천792억원, 당기순이익은 28.8% 증가한 2천863억원을 기록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올 김장비용 40% 가까이 줄 듯"

배추·무 재료값 하락 10만원선 전망

올해 김장비용은 4인 가족기준(배추 20포기)에 10만원선으로, 지난해의 16만원보다 38% 낮아질 전망이다.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28일 "이는 올해 배추·무·대파·마늘 등 주요 김장재료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20~60%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추·무의 경우 지난해 시세가 좋아 농민들이 재배면적을 늘린 데다 올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 공급량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마트에서는 판매하는 가격은 배추가 1통당 980원으로 작년의 2천980원에 비해 67% 내렸고, 무는 1개당 980원으로 작년 2천480원에 비해 60% 낮아졌다. 대파나 쪽파 1단의 가격도 각각 1천480원, 2천280원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고춧가루는 고온과 가뭄현상으로 작황이 부진해 건고추 시세가 올라감에 따라 가격이 작년 대비 11%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우젓은 김장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추젓을 기준으로 어획량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유가상승과 중국산 새우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있는 영향으로 가격이 20%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멜라민 파동으로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김장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 김장시즌 물량을 지난해보다 50%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풍년들어 우는 사과·배
흉년에 웃는 밀감·포도

가을철 대표 과일 가격 희비

사과와 배 값은 폭락하는 반면 밀감과 포도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28일 편의점업체 GS리테일에 따르면 가을철 대표 과일인 사과와 배는 올해 유난히 맑은 날이 많았던 탓에 대풍을 이루면서 수확물량이 증가해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밀감과 포도는 물량 부족으로 산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GS리테일 조사에 따르면 배와 사과의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10~20% 가량 늘었지만 가격은 지난해의 60~70% 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준으로 사과(15kg)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하락한 3만1천~3만3천원에 팔리고 있다.

이른 추석의 영향으로 성수기를 놓치고 수확된 물량이 많은데다 날씨까지 좋아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밀감과 포도는 물량이 줄어들어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올랐다.

제주 밀감의 생산량은 지난해 90만t에서 올해 40만t으로 급감했다.

이로인해 가격은 크게 올라 지난해 10월 말 산지 가격은 10kg 기준 1만3천원이었으나 올해는 2만원으로 50% 이상 올랐다.

포도의 경우 여름에 수확해서 저장해놓은 물량이 부족해 오름세다. 지난해 10월말 포도 산지 가격은 5kg 기준으로 1만2천원이었으나 올해는 2만원으로 60% 이상 올랐다. /연합뉴스

아모레 한방 스파 '한율정' 충장점 본격 영업

㈜아모레퍼시픽이 최근 오픈한 한방스파 한율정(停)은 기(氣)·혈(血)·진(津液)의 순환이 원활해야 피부가 최적의 균형상태를 이룬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한방 에스테틱 매장이다. 〈사진〉

빠른 회복을 도와주는 '성형전후 케어', 바디테크닉으로 마사지 효과를 상승시키는 '바디 애드 온 프로그램', 점심시간동안 빠르게 피부순환을 되찾아줄 '런치 케어', 에너지 리듬과 피부흐름을 채워주는 '호르몬 균형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매장은 광주시 동구 충장로 2가 아리따움 충장직영점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픈기념 이벤트 20% 할인 행사를 1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사료 값 6~8% 오른다

전남지역 업체 "채산성 악화 인상 불가피"

전남지역 사료 생산업체들이 30일부터 배합사료 가격을 kg당 30~38원(6~8%) 올릴 예정이어서 축산농가들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광주축협과 농협사료 나주공장 등은 "최근 원·달러 환율폭등으로 환차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최악의 경영난에 봉착해 어쩔 수 없이 배합사료값을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축협 목포사료공장은 최근 두 달 동안 급등한 환율로 60억원대의 환차손을 입었고, 나주공장도 8억여원의 환차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축협의 경우 올 상반기 적자가 5억원에 그쳤으나, 최근 3개월 동안 원·달러환율이 40% 올라 60억원의 적자가 추가됐다.

한편 지난 2006년 11월부터 인상행진을 시작한 배합사료값은 이번까지 포함하면 모두 8차례에 걸쳐 70% 이상 올랐으며, 올해에만 5차례나 인상하게 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